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4. 20 (목)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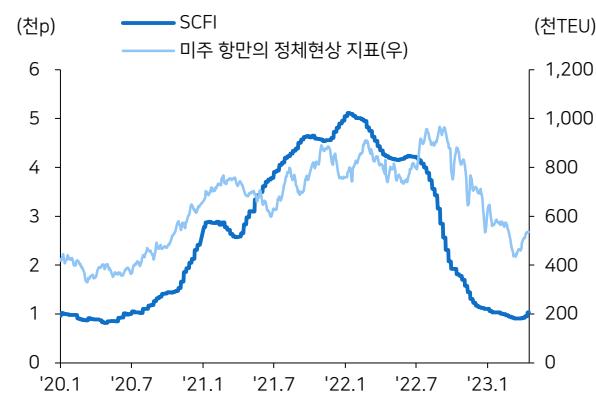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1,372.0p(+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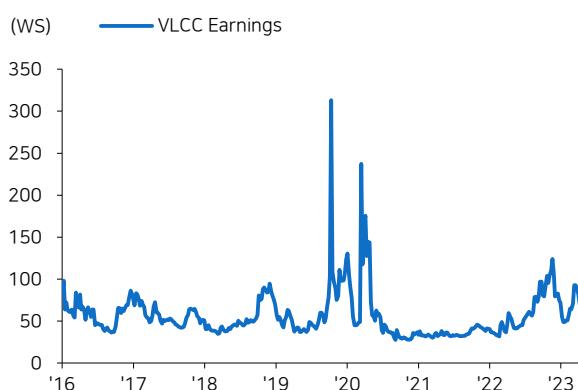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1,033.7p(+76.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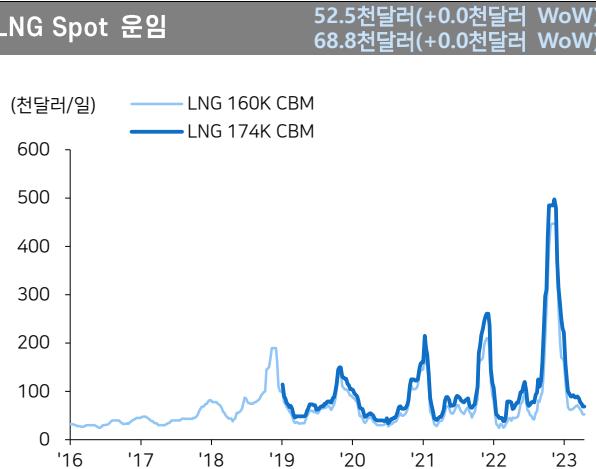
## VLCC Spot Rate

69.7p(-0.1p WoW)



## LNG Spot 운임

52.5천달러(+0.0천달러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5.9p(+0.3p WoW)  
154.4p(+0.9p WoW)

## 중국 내수 후판가격

649.0달러(-1.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Biden extends US ban on Russian-affiliated vessels for a further year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 선박 제재를 연장했다고 보도됨. 러시아 선급에 등록되어있거나, 러시아 회사 · 국민 · 거주자 등이 소유한 선박에 해당됨. 해당 제재는 2022년 4월부터 시작돼 이번주 만료 예정이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shorturl.at/auzO0>)

### Global Feeder Shipping orders MRs as Dubai firm targets booming product tanker market

중동 Global Feeder Shipping이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2척을 발주한 선주로 보도됨. 50,000DWT급 MR탱커 2척은 9,280만달러에 계약되었고, 2025년 7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MR탱커 선가는 8개월 사이 약 9% 상승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fQY23>)

### Doubles all round as John Fredriksen and Euronav order suezmax tankers

John Fredriksen과 Euronav가 Suezmax 탱커 2척씩 발주했다고 보도됨. John Fredriksen이 운영하는 Seatankers Management는 Shanghai Waigaoqiao에 150,000DWT급 탱커 2척을 발주했고, 2025년 인도 예정으로 알려짐. 스크러버 장착 선박으로 척당 7,300만달러에 계약됨. Euronav는 158,000DWT급 Suezmax 옵션분 2척을 대한조선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척당 8,000만달러 수준으로 2025년에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https://shorturl.at/aNOV6>)

### HMM moves to field tests of carbon capture on container ships

HMM이 탄소 포집 · 저장 기술(OCCS)을 다목적선(MPV)에 적용하는 검증을 마쳤다고 보도됨. 기존 설비 변경 없이 다목적선에 OCCS를 설치할 수 있고 운항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도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Tradewinds) (<https://shorturl.at/ouCP7>)

### Supramax rates from US Gulf Coast to China jump amid Atlantic basin tonnage oversupply

대서양지역 공급초과 상황에서 미국 걸프만-중국항로 Supramax 벌크선 spot운임이 1월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해당 항로가 수요일(19일) Baltic Exchange 평균운임이 11% 상승한 반면, 남미-중국 항로 운임은 1% 상승했다고 언급됨. 선주들이 대서양 지역에 남고 싶어해 태평양 공급은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언급됨. 한편, 계절적으로 Supramax 전반적인 운임은 높은 상황으로 알려짐. (Tradewinds) (<https://shorturl.at/eGJY2>)

### Container freight rates spike, but is it another false dawn?

컨테이너선사들이 장기계약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단기운임을 상향하며 현재 급등한 컨테이너 단기운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전망으로 보도됨. 아시아-미주서안항로 운임이 4월 18일 기준 전주대비 70% 상승했다고 언급됨. 2023년 최대폭의 상승이라고 언급됨. 일부 선사들이 4월 15일부로 일괄운임인상(GRI)을 단행한 효과로 알려짐.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28척만이 폐선되어 수급불균형이 유지될 전망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wxBLX>)